

- 사생결단 기도회 열한째 날 -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

-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1-8)

1. 성령 충만, 성령 지배, 성령에 사로잡힌 삶에는 “의문”, “의심”, “질문”이 사라집니다.
 - A.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 B.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뜻합니다.
 - C.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의문, 의심,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 D. 구원 얻은 인생 자체가 덤으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 E. 풀리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 등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 F.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거나,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나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 G. 심지어 나의 삶이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아픔에 시달리다 오늘 끝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안식,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됨을 기뻐하게 됩니다.
2. 의문, 의심, 질문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욕심**”에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 A.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제자들의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 B.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 전반적인 치욕과 아픔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 C.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였던 제자들의 의문과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고, 나타내실 진정한 회복이 그들이 원했던 답과는 전혀 판판이었다는 것입니다.
 - D. 세상 권력과 정치와 같은 방식을 기대하였던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따라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정치적 위치와 자리싸움으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10:35-45)

3.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면,
 - A. 언제 회복시켜주실 것인가 보다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 B.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기한은, 우리가 결코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 C. 일의 시종과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 D. 정작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 우리의 모든 관심은,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A.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인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 B.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 C. 비록 필요와 상황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 D. 사망의 길에서 건져 내어 주신 것, 죽음이 더 이상의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은혜만으로 감격할 수 있게 하십니다.
- E.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두고 그저 예배함이, 기도함이 즐거운 것인데, 그 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사명과 꿈과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 5. 자유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인간적 이해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와 기한”을 판단하고 미리 알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포기되어질 수 있을까요?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4-18절)

- 5. 성령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 속에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 A.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 B.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 C.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믿음밖에 내지 못하는 나의 예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 D.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17-19)**

-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13-14)**